

서울 도시계획 현장 시민참여단 위촉식 및 워크숍 결과

□ 회의개요

- 일 시 : '14. 11. 21.(금) 18:30~21:30
- 장 소 : 신청사 8층 다목적홀
- 참 석 : 총130명
 - 시민참여단, 청년서포터즈, 제정위원회, 연구진, 서울시 관계자 등
- 주요내용 :
 - 위촉식 : 위촉장 수여, 기념촬영, 도시계획 기초강연
 - 워크숍 : 시민참여단이 바라는 서울의 미래상과 그 이유
추진계획 및 향후 논의일정(토론회 논의주제, 회의일정 등)

□ 워크숍 결과

-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상과 이유 논의, 결과 주제별 분류
 -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시민의견 도출
- 토론주제 선정
 - 시민참여단이 개인이 선호하는 주제와 미래에 지켜야 할 가치의 중요도를 각각 조사
 - 두 결과를 합산하여,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주제와 가장 적은 득표를 얻은 주제를 묶어서 1회당 2주제씩 토론 진행

논의 순서	분 야	합계	개인 선호	미래 중시	분 야	합계	개인 선호	미래 중시
1	도시와 시민	17	10	12	도시공간구조	9	3	6
2	안전한 도시생활환경	30	16	14	집약적 토지이용	6	4	2
3	친환경 도시	22	8	14	생태/경관 보호	11	3	8
4	역사문화유산	21	13	8	장소성이 있는 도시	17	12	5
5	조화로운 도시	22	9	13	지역공동체	18	10	8

○ 토론회 개최 시간 : 금요일 오후

- 시민참여단 투표로 결정(금요일 오후 59표, 토요일 오전 30표)

※ 시민참여단 브레인 라이팅 의견

- ▶ 브레인 라이팅은 무언의 발상 작업 후, 용지에 기입하는 방법의 집단발상법
- ▶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적은 이유(괄호 안)를 작성
- ▶ 시민참여단이 내어놓은 전체 의견은 토론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전문 게재
(2개 이상 분야에 걸친 의견은 각각 해당분야에 중복 정리)

① 도시와 시민

-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사회(사회적 추세가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서로의 생각을 알고 인정을 해야 한다.)
- 소통하고 화합하고 공유하는 서울시가 되기를 바란다.(관악구의 빈부격차가 심하며 구로구는 더욱 심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.)
-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고 소통하는 도시(서울이 수도로 된지 오래되 다양한 역사가 있다. 아픈 역사도 보존해야 될 역사다. 아픈 역사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경쟁력 있는 부분이다. 서울은 지방에 비해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. 그것을 앞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.)
- 다양성과 역사성이 살아있는 세계도시 서울(다양한 계층이 살아가는 서울인데 세계의 도시와 비교해도 역사보존이 안됨, 서울이 한국보다 유명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됨)
- 다양성이 공존하는 조화롭고 안전한 도시(확일화된 것들이 많은 것 같다. 그런 것이 아닌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고, 또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.)
- 경쟁력 갖춘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.(환경, 시스템, 제반 사업들이 모두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도시와는 다른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)
- 참여와 협력의 도시(서울 안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동안 소극적으로 살아옴. 소극적인 사람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. 그를 통해 소속감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음)
- 사회구성원 간에 민주적 합의하는 도시(배려, 포용, 조화, 합리적 설득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간이 민주적으로 결과가 도출되어야한다. 단 소수의 의견, 사적이익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일이 방지되는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.)
- 다양성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(모두가 균등하기 살아 갈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하기 때문에)
- 주민이 참여하는 능동 서울(서울의 주인은 시민인데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함, 거버넌스로 가는 참가로 가야함, 능동적으로 시민의 생각을 반영해야함)
- 공존하는 도시입니다.(공존하고 생각이 달라도 같이 모여살 수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)
- 빈부격차 축소와 노소동락을 통한 모두가 공존하는 도시(갈등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의

미래가 있다.)

- 시민들 간 소통이 원활한 공동체(소통의 물고기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)
-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기반으로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(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전에 계획되었던 사업이나 계획들이 취소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도시환경이 되면 다소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.)
- 사람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(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데,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나누고 인간적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.)
- 활기찬 경제력과 다양한 인종이 조화롭게 모여 사는 도시(경제가 살아 있어야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.)
- 같이,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(경쟁의 패러다임 속에 살아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공유, 공공성이 있는, 공동체적인 모습들이 필요하다.)
- 건강, 편리, 쾌적, 안전(쾌적·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만들어야 한다.)
- 시민들이 편리하고 즐거운,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도시(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용할 때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.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, 삶의 질이 우수한 도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.)
- 역사문화와 다양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도시(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역사와 문화를, 가치적인 차원에서는 서울의 높은 인구수와 인구밀도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도시를 원하기 때문에.)
-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여 이웃이 되는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다.(이웃끼리 서로를 몰라 큰 문제가 생겼다.)
- 보여 지는 서울이 아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서울 “공감 서울”
- 절감형 도시(서울은 현재 욕망의 도시,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도시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, 에너지 갈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추구해야 한다. 무엇보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. 개인적이 아닌 다수를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.)

② 생태/경관 보호

- 생태경관이 보호되는 서울이 되면 좋겠다.(한강이나 남산같은 자연경관을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.)
- 과거 현재 미래를 느낄 수 있는 곳(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, 제대로 된 서울을 위해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보전해야 한다.)
- 자연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서울(너무 스마트하고 컴팩트한 도시에 경쟁적인 사회이다. 어느 정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도시환경을 원한다)
- 산의 접근성을 높이는 도시(건강, 운동에 적절한 등산을 활성화하고 좀 접근성을 높여서 쾌

적한 환경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)

- 서울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도시(서울의 독특한 한강중심의 경관 등을 창조적으로 살려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자.)
- 자연과 역사문화&첨단 시설이 조화로운 미래 도시(조화로우미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.)
- 시민의 야외활동이 활발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.(모든 시민의 야외활동, 옥외활동, 수상스포츠 활동이 활발했으면 좋겠다.)
- 주거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각 가정이나 가구마다 푸르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(아파트는 이타주의의 대표적,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, 아파트에 살면서 휴과 푸르름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거형태마다 녹지공간이 확산이 되길 바람.)
- 문화와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(서울에는 공간과 사람의문제가 있다. 근대 산업유산 역시 도시의 미래상이 될 수 있다.)
- 도로와 공원이 많은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다.(서울에는 사람은 많으나 길은 너무 좁다.)
- 자연과 역사문화&첨단 시설이 조화로운 미래 도시(조화로우미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.)

3] 역사문화유산

- 역사가 보존되어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.(경복궁은 불타서 재건했고 수원은 100년 된 초등학교를 부수었는데 무조건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보존이 필요하다.)
- 문화와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(서울에는 공간과 사람의문제가 있다. 근대 산업유산 역시 도시의 미래상이 될 수 있다.)
- 과거 현재 미래를 느낄 수 있는 곳(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, 제대로 된 서울을 위해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보전해야 한다.)
-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(서울이 수도로 된지 오래되 다양한 역사가 있다. 아픈 역사도 보존해야 될 역사다. 아픈 역사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경쟁력 있는 부분이다.)
- 다양성과 역사성이 살아있는 세계도시 서울(다양한 계층이 살아가는 서울인데 세계의 도시와 비교해도 역사보존이 안됨, 서울이 한국보다 유명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됨)
- 과거 현재 미래를 느낄 수 있는 곳(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, 제대로 된 서울을 위해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보전해야 한다.)
- 역사정체성을 보호, 온전한 보전으로 후세에 계승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복원한 역사물과 유산의 도시로서 관광자원, 콘텐츠를 가진 도시(역사의 정체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한다)
-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하는 서울(정체성을 가져야함)(새로운 것: 첨단, 대중교통 / 오래된 것: 역사, 경관 보전)
- 서울은 역사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여야 한다.(시민에게 친숙한 역사재생 방법으로 역사 문화를 공존시키면 가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.)
- 고유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.(다른 외국인들이 서울을 바라보았을 때 느껴지는 서울의

고유 정신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우리 서울의 고유한 정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)

- 서울의 깊은 역사를 담아 과거, 현재 미래까지 언제나 살기 좋은 도시(서울은 문화재가 많고, 소중한 역사가 많지만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살려서 거주자를 위주로 살았으면 하기 때문에)
- 더 이상의 문화, 역사경관의 훼손을 방지하여 역사성과 성장과정이 보여 지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.(앞으로 발전만을 생각해 계획을 세우지 말고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. 과거의 역사성을 얼마나 내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.)
- 정체성을 보존하는 도시(서울의 정도600년을 보존하지 못하고 많이 훼손되고 있음, 재개발/난개발로 인해 많이 훼손)
- 생태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이 보호되는 서울이 되면 좋겠다.(역사문화유산이 많이 파괴되는 것이 아쉽고, 한강이나 남산같은 자연경관을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.)
- 역사문화와 다양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도시(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역사와 문화를, 가치적인 차원에서는 서울의 높은 인구수와 인구밀도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도시를 원하기 때문에.)
- 역사와 자연,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도시(서울의 미래가 역사, 자연, 현대 문명이 공존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.)
- 과거와 현재,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.(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모습을 보고 싶다.)
- 자연과 역사문화&첨단 시설이 조화로운 미래 도시(조화로우미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.)
- 역사문화와 다양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도시(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역사와 문화를, 가치적인 차원에서는 서울의 높은 인구수와 인구밀도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도시를 원하기 때문에.)
-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고 소통하는 도시(서울이 수도로 된지 오래되 다양한 역사가 있다. 아픈 역사도 보존해야 될 역사다. 아픈 역사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경쟁력 있는 부분이다. 서울은 지방에 비해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. 그것을 앞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.)
- 역사와 전통이 중시되는 녹색 안전도시 서울(외형적으로는 보존이 잘 되어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궁 체험 등의 기회를 더 늘려주면.)

4 도시공간구조

-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되어 잘 살 수 있는 도시(여러 지역이 발전이 되는, 공익을 위한, 편리를 위한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다. 그를 통해서 차별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)
-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하는 서울(정체성을 가져야함)(새로운 것: 첨단, 대중교통 / 오래된 것: 역사, 경관 보전)
- 건강한 도시(걸어 다닐 때 보고 들을 때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. 8, 10차선 도로들,

- 밀집된 상가들 등등.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때에 건강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.)
- 역사와 전통이 중시되는 녹색 안전도시 서울(외형적으로는 보존이 잘 되어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궁 체험 등의 기회를 더 늘려주면.)
- 도로와 공원이 많은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다.(서울에는 사람은 많으나 길은 너무 좁다.)
- 자연과 역사문화 & 첨단 시설이 조화로운 미래 도시(조화로우미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.)

5] 집약적 토지이용

- 도로와 공원이 많은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다.(서울에는 사람은 많으나 길은 너무 좁다.)
- 자연친화적인 대중교통으로 서울의 공기가 오염되지 않길 바란다.(남산에 산책할 때 많은 버스들에 의해 매년 공해가 심하다.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 오염도를 낮추고 자연친화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. 이것이 잘된다면 다른 나라에 모범적 사례로 적용하여 또 하나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 같다.)
- 보행자가 우선인 도시(공정한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듦, 보행자 위주로 되면 인간성도 생기고 배려하는 문화도 생기게 될 것, 노약자/장애인 등도 배려하게 될 것)
- 친환경적이고, 쾌적하고 과학적인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(건축물에 있는 규정을 사람들이 지키고, 가치들을 친환경적으로 배치하고, 교통체계 역시 정리하여 에너지 전략적인 도시이어야 할 것이다.)
-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하는 서울(정체성을 가져야함)(새로운 것: 첨단, 대중교통 / 오래된 것: 역사, 경관 보전)
- 문화와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(서울에는 공간과 사람의 문제가 있다. 근대 산업유산 역시 도시의 미래상이 될 수 있다.)
- 서울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도시(서울의 문화자원, 산업, 사람들의 성격, 대중교통시스템 등을 창조적으로 살려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자.)
- 노년세대가 되어서도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(에너지 생산비용도 낮춰야한다. 또한 콤팩트한 주거형 개발이 필요하다.)
- 건강한 도시(걸어 다닐 때 보고 들을 때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. 8, 10차선 도로들, 밀집된 상가들 등등.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때에 건강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.)

6] 장소성이 있는 도시

- 전통시장과 골목길이 그림자다.(서울을 처음 왔을 때 골목길이 떠올랐는데 요즘은 어디나 개발 되어서 어느 나라나 똑같은 모습의 서울로 변해버림, 전통시장은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지님, 서민들의 진실 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전통시장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)
- 서울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.(파리, 런던과 같은 도시들은 그 도시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서울도 IT 및 그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

때문입니다.)

- 지역에 다양성의 가치를 높이는 서울(자치구에서 자기 지역을 내세울 수 있는 홍보 거리를 찾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. 그렇게 하면 지역 간 경쟁이 될 것이다.)
- 주거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각 가정이나 가구마다 푸르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(아파트는 이타주의의 대표적,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, 아파트에 살면서 휴과 푸르름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거형태마다 녹지공간이 확산이 되길 바람.)
-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필지단위의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큰길보다는 골목길이나 소로로 이루어진 도시(집주인이 우선되는 재개발(세입자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) 승용차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광로를 지양해야한다)
- 재개발을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.(금천구의 경우, 경기도가 오히려 서울 같다. 재개발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.)
- 문화와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(서울에는 공간과 사람의 문제가 있다. 근대 산업유산 역시 도시의 미래상이 될 수 있다.)
-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추고 있는 도시(안전한 도시여야 문화경쟁력과 지속성을 가진다.)

7 지역공동체

-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여 이웃이 되는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다.(이웃끼리 서로를 몰라 큰 문제가 생겼다.)
- 탁아, 보육정책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추구하는 서울입니다(서울에서 살면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신뢰있는 보육 교사들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.)
- 노숙자들도 의식주를 보장받는 도시가 되어야한다.(쉼터가 있지만 수요에 비해 좁은 공간이다 보니 프라이버시를 존중 할 개인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정신치료를 통해 해결해 주어야 한다)
- 아파트 같은 경우, 특히 이웃을 돌보지 않기에 이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. 따라서 지자체의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마을 공동체차원의 노력, 인식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.
-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(단독주택가나 낙후된 지역에 무조건적인 재개발 보다는 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해결했으면 좋겠고 지역의 역사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시민휴식공간(공원 등)을 잘 개발해 도심녹지공간을 늘려주면 좋겠다.)
- 주차가 편리한 공간이 있는 도시(주차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.)
- 노인들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이 모인 곳이 있는 서울(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는데 도움을 받는 곳이 필요하다. 이런 것들이 모여 있을 때가 좋은 도시인 것 같다.)
- 노년세대가 되어서도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(방안으로써 공공시설이용 비용이

줄이되 이용 비중을 높여야하고, 에너지 생산비용도 낮춰야한다. 또한 콤팩트한 주거형 개발이 필요하다.)

- 도로와 공원이 많은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다.(서울에는 사람은 많으나 길은 너무 좁다.)

8] 안전한 도시생활환경

-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시(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,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인 서울시, 공해를 줄이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서 외국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.)
-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추고 있는 도시(안전한 도시여야 문화경쟁력과 지속성을 가진다.)
- 범죄로부터 안전하며 공해가 적은 친환경도시(위험해진 사회 문제로부터 안전하고, 각박해진 사람들 생각을 여유롭게 하고, 그러나 어느 정도 규제를 약간 하면서 사회의 시스템이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.)
- 건강, 편리, 쾌적, 안전(쾌적,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시민 의식을 만들어야한다.)
- 시민의 야외활동이 활발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.(모든 시민의 야외활동, 옥외활동, 수상스포츠 활동이 활발했으면 좋겠다.)
- 안전(안전이 보장받는 살기좋은 서울이 되었습니다.)
- 역사와 전통이 중시되는 녹색 안전도시 서울(외형적으로는 보존이 잘 되어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궁 체험 등의 기회를 더 늘려주면.)

9] 친환경 도시

- 절감형 도시(서울은 현재 욕망의 도시,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도시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, 에너지 갈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추구해야한다. 무엇보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. 개인적이 아닌 다수를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.)
- 오염 없는 친환경적인 도시(냉난방시스템은 지열을 이용하고, 옥상베란다에는 나무와 식물이 가득한 쾌적하고 공해가 적어 사람들 살기 좋은 도시가 좋다고 생각)
-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서울입니다.(신재생에너지,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같은 공해 없는 자연 청정에너지를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.)
- 공해가 없는 도시입니다.(높은 건물과 빌딩숲 사이로 지나가는 자동차들과 그것들에서 나오는 매연이 너무 대기오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. 이는 청정 환경에너지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)
-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시(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할 것이고,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인 서울시, 공해를 줄이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서 외국인에게도 좋은 인상을

주어야 할 것이다.)

- 범죄로부터 안전하며 공해가 적은 친환경도시(위험해진 사회 문제로부터 안전하고, 각박해진 사람들 생각을 여유롭게 하고, 그러나 어느 정도 규제를 약간 하면서 사회의 시스템이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.)
- 환경을 살리고 편리한 생활이 공존하는 사람을 위한 도시(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)
- 깨끗한 환경도시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(베이징이 APEC을 개최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공기를 쾌적하게 했으나, 서울은 영구적으로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.)
-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자(더 짓기보다는 환경친화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. 어딜 가도 녹색을 바라볼 수 있는 도시가 건강하기 때문에)
- 노년세대가 되어서도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(에너지 생산비용도 낮춰야한다.)
- 친환경적이고, 쾌적하고 과학적인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(건축물에 있는 규정을 사람들이 지키고, 가치들을 친환경적으로 배치하고, 교통체계 역시 정리하여 에너지 전략적인 도시이어야 할 것이다.)
- 다양성이 공존하는 조화롭고 안전한 도시(확일화된 것들이 많은 것 같다. 그런 것이 아닌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고, 또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.)
- 복지와 안전, 인권(복지와 안전이 보장받고 인권이 존중되는 살기 좋은 서울이 되었습니다.)

10 조화로운 도시

- 주변 환경/건축물 조화(높이 형태) (남대문시장에 외국관광객들이 많다. 외관은 화려하다. 하지만 화장실 불편과 뒷 이면은 굉장히 노후되었다. 서울 곳곳에 개발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.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수도권을 먼저 발전하고 타 지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.)
-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지만 정체성이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(경관, 디자인 등 지역특색을 갖추기도 하고 다양한 주거형태를 통해서 상호가 조화롭고 연결될 수 있는 도시)
- 친환경적이고, 쾌적하고 과학적인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(건축물에 있는 규정을 사람들이 지키고, 가치들을 친환경적으로 배치하고, 교통체계 역시 정리하여 에너지 전략적인 도시이어야 할 것이다.)

※ 기 타

- 국가 안보가 우선인 도시
- 복지와 안전, 인권(복지와 안전이 보장받고 인권이 존중되는 살기 좋은 서울이 되었습니다.)